

UN 총회 산하 노인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개방형 고령화 실무 그룹에 전하는 공개 서한

2021년 9월 20일

배경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세계 각지에서 인권을 대변하는 우리 모두는 인권을 보장받으며 존엄성과 존중을 받는 노년기를 보내길 소망합니다. 유엔개방형 고령화 실무그룹(OEWGA, United Nations Open-Ended Working Group on Ageing)은 노인의 인권과 존엄성을 보호 및 증진하고 노인 인권 증진을 목표로 하는 국제 협약 성안과 동 협약의 주요 구성요소를 담은 제안서를 유엔 총회에서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2010년 출범 이래로 유엔고령화실무그룹은 11차에 걸쳐 실무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유엔고령화실무그룹은 관련 논의를 진행하며 노인인권과 관련 있는 국제인권체계의 두드러지는 결함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료는 고령자들 본인, 유엔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학계, 정부 및 국가인권기구 등이 제공한 자료들이며, 이들 모두 미비점 개선을 위하여 협약 채택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제11차 유엔고령화실무그룹 회의에서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발표한 연구 보고서를 보면, 그들이 처한 상황과 관계없이 노인 누구도 소외받지 않기 위하여 노인인권에 특화된 새로운 국제협약을 통하여 더욱 정교한 규범과 기준을 발전시킬 필요성이 명확해집니다.

유엔노인인권협약 성안을 뒷받침하는 증거와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영향에도 불구하고, 유엔고령화실무그룹은 신규 노인인권협약의 구성요소를 확인하는데 성과를 내지 못 하였으며 이러한 점에서 실무그룹의 임무를 달성하지 못 하였습니다. 많은 유엔 회원국들이 협약을 지지하고 있으나, 합의에는 이루지 못하여 유엔고령화실무그룹의 명확한 논의 결과물이 도출되지 못하였습니다.

합의의 중요성은 모두가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며, 최종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유엔고령화실무그룹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하나, 우리는 146개국이 코로나19가 노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무총장의 정책 보고서를 공식적으로 지지하였으며, 노인 인권과 존엄성을 온전히 존중하고 증진하겠다는 약속을 하였다는 점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엔고령화실무그룹에게 있어서 튼튼한 토대이며 이것을 기점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새로운 유엔 협약은 권리자로서 노인의 지위를 명시적이고 명백하게 인정하고 노년의 인권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향상시킬 것입니다. 또한 동 협약은 정부 및 기타 기관에게 연령차별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공공 서비스가 노인의 존엄성을 옹호하며 고령자를 향한 태도와 행동이 존중감이 있도록 보장하는 데 있어 소중한 지침을 제공할 것입니다.

유엔고령화실무그룹 첫 번째 회기부터 의장직을 맡고 있는 아르헨티나 대표부가 이끄는 집행이사회는 이러한 업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 중추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집행이사회가 제11차와 제12차 회의 기간 사이에 유엔고령화실무그룹의 업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며 유엔 회원국이 집행이사회에 이러한 조치에 지지할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향후 건의 사항

우리는 유엔고령화실무그룹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제11차 회기에서 아르헨티나 정부가 제안한 ‘회기간 실무단’ 설치를 지지하는 바입니다. 이 실무단은 회원국의 전문가, 시민사회 단체, 국가인권기구가 포함되어야 하고, 유엔노인인권독립 전문가, 유엔인권메커니즘·특별절차 관련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이 실무단은 정기회의 사이 기간 동안 국제법률문서의 주요한 규범 요소를 담은 초안 작성에 착수해야 합니다.

우리는 구속력 있는 문서 작성을 노인 당사자의 참여, 그들의 지식, 전문성, 그리고 경험을 논의의 중심에 두는 공개적이고 폭넓은 회의체를 통하여 지체 없이 시작하는 것이 유엔고령화실무그룹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12차 유엔고령화실무그룹은 집행이사회가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회의 장입니다. 노인인권 증진과 보호를 위한 국제인권시스템 규범체계와 이의 이행 메커니즘의 적절성에 대한 필수적인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하여, 집행이사회는 제12차 회기 의제에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분석 보고서에 대한 내용 논의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또한, 향후 추진 과제로 집행이사회는 제12차 회기 이후 6개월 안에 업무를 시작하도록 새로운 문서 초안 작성을 위한 프로그램과 절차에 대한 제안서를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는 집행이사회에 이러한 권고사항을 수용할 것을 요청하고, ‘노인우호 그룹’ (Group of Friends of Older Persons)에 속한 정부를 비롯한 회원국이 이러한 결과를 도출하는 데 있어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실 것 또한 촉구합니다.

유엔고령화실무그룹이 업무를 시작한 지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현 시대의 노인과 미래 모든 세대를 위하여 정의롭고 평등한 사회를 건설하고자 한다면, 유엔고령화실무그룹의 임무 달성이 이토록 시급했던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유엔고령화실무그룹의 임무 달성에 대해 변함없는 지지를 보낸다는 의미로 이 공개서한을 집행이사회와 유엔 회원국에게 송부합니다. 제12차 유엔고령화실무그룹 개최 전까지 우리는 공식적 혹은 비공식적으로 동 권고사항과 행동촉구 후속조치를 포함하여 건설적인 담론을 이어가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